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윤 령 미

2016년 8월



#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 미술수업 지도방안

-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곽 정 명

윤 령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윤령미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위 원 \_\_\_\_\_ 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6월

# An Art Class Teaching Method using Folk Culture of Jeju

-Focusing on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Yun-Reung Mi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Kwac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6.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ung-Myung Kwack, Prof. of Art Education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제  
주  
향  
토  
문  
화  
를  
활  
용  
한  
미  
술  
수  
업  
지  
도  
방  
안

윤  
령  
미

2  
0  
1  
6





< 국문초록 >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미술수업 지도방안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윤 령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곽 정 명

근대 이후로 급변해 온 세계 문화는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과거 모더니즘의 객관성, 보편성, 절대성을 지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개별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담론이 아닌 미시담론에 근거한 관점이 대두되면서, 강대국의 주류문화만이 아닌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주변국과 그에 속해있는 인종, 지역사회, 단체 등의 비주류 문화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비로소 존중받게 되었다. 이에 각 국가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자국의 문화와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은 현 시점에서 개별 주체 각각의 고유한 특수성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지역만의 향토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 문화의 특성을 미술수업에 적용하여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술활동을 통해 제주 향토문화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간신앙, 세시풍속, 생산기술, 의식주, 통과의례, 설화를 주제로 6차시의 수

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향토문화인 만큼 도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용하여 아동들의 이해를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제주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독특한 문화 요소에 대한 친근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습득한 문화내용을 직접 미술표현 활동으로 재현해 봄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제작 활동 시 아동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흥미와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셋째, 표현활동을 통해 재현된 작품을 실생활에 적용해 봄으로써 아동들의 사고방식이 확장되었으며, 또한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저학년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접근하기 힘든 향토문화 수업을 미술수업에 적용해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또한 제주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지역 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은 문화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 시대의 지향점을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화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

※ 본 논문은 201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II. 지역 향토문화의 교육적 활용 .....	3
1. 지역 향토문화의 개념과 교육의 가치 .....	3
2. 제주향토 문화의 생성배경과 이해 .....	6
III. 제주향토 문화를 활용한 지도 방안 .....	24
1. 교수 · 학습 계획 .....	24
2. 학습 과정안 및 결과물 .....	28
1) 영등굿 - 배방선 만들기 .....	28
2) 원담 - 바다풍경 그리기 .....	31
3) 도채비 방쉬 - 행운의 허수아비 만들기 .....	34
4) 타래버선 - 종이 타래버선 만들기 .....	37
5) 동자석 - 꿈을 담은 동자석 만들기 .....	40
6) 설문대 할망 - 상상화 그리기 .....	43
3. 결과 분석 및 기대효과 .....	46
IV. 결론 .....	48
참고문헌 .....	50
ABSTRACT .....	52

## 표 목 차

<표 1> 제주도 세시풍속 유형 .....	10
<표 2> 제주도 민간신앙의 유형 .....	12
<표 3> 제주도 통과의례 음식 .....	18
<표 4> 제주도 설화 .....	21
<표 5>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	26
<표 6> 1차시 학습 과정안 .....	28
<표 7> 영등굿 - 배방선 작품평가 .....	30
<표 8> 2차시 학습 과정안 .....	31
<표 9> 원담 - 바다풍경 그리기 작품평가 .....	33
<표 10> 3차시 학습 과정안 .....	34
<표 11> 도채비 방쉬 - 행운의 허수아비 만들기 작품평가 .....	36
<표 12> 4차시 학습 과정안 .....	37
<표 13> 타래버선 - 종이 타래버선 만들기 작품평가 .....	39
<표 14> 5차시 학습 과정안 .....	40
<표 15> 동자석 - 꿈을 담은 동자석 만들기 작품평가 .....	42
<표 16> 6차시 학습 과정안 .....	43
<표 17> 설문대 할망 - 상상화 그리기 작품평가 .....	45

## 그림 목 차

<그림 1> 농기구 .....	13
<그림 2> 제주도 테우 .....	14
<그림 3> 물질도구 .....	15
<그림 4> 제주시 우도면 원담 .....	15
<그림 5> 타래버선 .....	16
<그림 6> 해녀 복 .....	17
<그림 7> 제주도 우장 .....	17
<그림 8> 제주초가와 육지초가 비교 .....	19
<그림 9> 제주도 정낭 .....	20
<그림 10> 동자석 .....	23
<그림 11> 수업 모형 .....	25
<그림 12-15> 1차시 학생 작품 .....	30
<그림 16-19> 2차시 학생 작품 .....	33
<그림 20-23> 3차시 학생 작품 .....	36
<그림 24-27> 4차시 학생 작품 .....	39
<그림 28-31> 5차시 학생 작품 .....	42
<그림 32-35> 6차시 학생 작품 .....	45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 향토문화는 한 민족의 동질성과 문화적 전통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양식이다. 이와 같은 향토문화는 민족 문화의 토대로서 시대에 따라 지역과 계층별로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기에, 문화적 다양성의 시대에 자라나는 현 세대에게 있어 필수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 향토문화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생성된 고유의 특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화로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지역민들의 강인한 정신과 삶의 의지, 문화적 특유성을 엿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민간신앙, 세시풍속, 설화 등의 문화적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투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특색을 형성하였다. 특히 제주 문화는 여성 중심의 생활문화로서, 창조여신 ‘설문대 할망’부터 ‘영등할망’ 등 남신에 비해 여신의 수가 월등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상호 연관성을 맺으며 존재해 왔고, 또한 하나의 문화 요소 안에 설화적 요소와 무속적 요소 등이 공존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색 있는 문화적 환경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제주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교육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사라져가는 제주향토문화를 이후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해 제주 향토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 운영이 당면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제주향토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미술활동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흥미를 미술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술 표현활동을 통해 문화 요소를 재현해 보며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제주인 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제주 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아동들이 제주향토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감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 수업의 대상은 제주시 ‘ㄱ’ 지역아동센터 저학년 학생 20명(남학생 11명, 여학생 9명), ‘ㄹ’ 지역아동센터 저학년 학생 20명(남학생 13명, 여학생 7명), ‘ㅎ’ 지역아동센터 30명(남학생 19명, 여학생 11명)으로 설정한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I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향토문화의 개념과 교육적 활용의 가치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의 당위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학습과정안의 기본 배경이 되는 제주향토문화의 형성배경을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각 요소별 특징을 살펴보겠다.

IV장에서는 제주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 교수 학습 과정안을 주제별로 6차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실제 수업 진행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분석하고 그 기대효과를 살펴 볼 것이다.

V장에서는 이러한 학습과정안의 결과물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일부 발생하였다. 아동들에게 적용 가능한 제주 향토문화 요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수업의 특성상 견학을 통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 과정안을 계획하고 진행할 것이다.

## II. 지역 향토문화의 교육적 활용

20세기 말경부터 문화 교육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화를 교육적 관점에서 새롭게 보려는 흐름으로 교과서 속에서 가르쳐 오던 지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은 변화의 가능성과 새로운 현실구성의 힘을 갖는다고 보는 교육관”<sup>1)</sup>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교육관의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철학적 사상과 맞물려 선진국들의 주류 문화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각 나라들과 각 지역사회의 문화는 각기 필요에 따라 형성된 가치 있는 문화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빠르게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의 필수교육으로 민족의 정체성확립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근본적 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역향토문화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 그리고 제주향토문화를 교육적 자료로서 그 생성배경과 문화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 향토 문화의 개념과 교육의 가치

향토문화는 향토와 문화의 합성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땅’, 이라는 향토와,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 들어 이르는 것’으로, 그 지역민들의 문화적 전통이자 생활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안에는 지역민들의 생활방식, 문화적 예술 활동과 정신성, 가치관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삶의 정서와 문화를 이루어온 역사적 전개과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역이 지닌 주체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지역은 서울의 변방이나 외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구체

1) 비교민속학회(2003), 「민속과 교육」 민속원, pp.9~10.

적인 현장이자 독립된 생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이 각기 다른 모습이었듯이 그 향토문화도 지역의 생태 조건과 역사적 전통을 담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향토문화는 중앙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문화가 아니며 자율성을 지닌 지역공동체의 문화”<sup>2)</sup>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향토문화에는 각 지역의 생활방식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적인 요건이 반영되어 시대상을 들여다 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그 지역민들의 문화적 성향 또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제주도는 본토와 가장 멀리 떨어져 존재해온 화산섬과 바다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해녀가 출현하였고, 마치 외국어 같이 느껴지는 제주의 향토성 짙은 방언은 훈민정음 문자인 흘소리중 하나로 현대는 사용하지 않는 아래-아(·)가 존재하며, 방언학 상으로도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다.

결국, 지역향토문화는 조상들이 문화의 흐름 속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일구어 보존해온 타당성과 가치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 지역의 삶의 방식과 역사를 대변해 준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계승하고 보존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외래문화가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고, 생활 양상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전통적인 문화의 보존은 어렵게 되었으며, 민족의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향토문화를 교육 자료로서 적절히 잘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향토문화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향토문화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향토문화는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오랜 시기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향토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하고 전승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점점 잊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인해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향토문화라고 해서 따분하고 폐쇄성을 지닌 것이 아니다. 주변국가 및 자국의

2) 이경엽(2004), 「지역 민속의 세계」 민속원, p.7.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며 형성되어 온 것으로, 각 지역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확보해 주는 구실을 한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과 민족적 개성을 유지하며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향토문화는 그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교육적 자료로서 지역문화의 뿌리를 담고 있으며 전통 교육인 동시에 전승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에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향토문화 수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올바른 인간상으로 “우리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sup>4)</sup>를 추구하며, 문화교육을 교육과정의 근본의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sup>5)</sup>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교과분류와 운영에 있어 생활양식의 연관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지역화,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 향토문화는 각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요소로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향토 문화는 아동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학습동기를 높이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선행교육으로 그 필요성이 높다.

3) 임재해(2004), 「민속 문화를 읽는 열쇠 말」 민속원, pp.31~32.

4)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사회복지법인 흥태원, p.3.

5) 상계서 p.20.

## 2. 제주 향토문화의 생성배경과 이해

본 절에서는 제주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향토문화의 형성배경을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향토문화를 세시풍속, 민간신앙, 생산기술, 의식주, 설화, 통과례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주 향토문화의 생성배경

제주도의 향토문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제주도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였으며,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특색으로 인해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를 둘러싼 바다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문화의 원천이 되어 왔으며,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화산섬이라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주로 해양 자원에 의존하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가뭄, 물 부족, 풍재의 삼재는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준 요인이지만, 그와 동시에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제주의 자연환경은 현재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그 동안 경시되었던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1) 지리적 배경

먼저 제주도의 지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층은 제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이 기간 중 98회 이상의 용암분출이 일어나 거의 모든 표층은 현무암이다.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제주도의 지반은 대부분이 암석지대로 이루어졌기에, 예부터 제주도민들에게 있어 척박한 토양에서의 수자원 확보는 가장 큰 시련으로 작용하였다.

제주도의 강수량은 연평균 1900㎜로, 흡족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용암류로 생긴 지하의 무수한 공동과 균열로 말미암아 지상에 물을 저장해 두기가 어렵다. 한국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간 강수량은 총 33억 9천만 톤에 이르는 데, 그 가운데 44%(14.9억톤)가 지하로 유입되며, 또한 증발산량이 37%(12.6억톤)에 이른다. 인간의 생활과 농업에 필요한 표류수는 고작19%(6.6억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내륙지방에서 주류를 이루는 벼농사는 제주도에서는 불가능했으며, 최소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거친 토지에는 밭농사를 지었다.

또한 지리적으로 서북에서 동남방향으로 흐르는 거대한 대양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는 사시사철 거센 풍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초겨울부터 이른 봄에 걸쳐 서북계절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늦봄에서 초가을 사이에는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제주도의 독특한 가옥 형태와 취락구조 및 돌담, 꼬부랑길 등의 삶의 모습은 모두 거친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문화는 물 없는 메마른 땅과 거센 바람에서 일어났으며 제주도민은 그 속에서 재난과 더불어 살았다고 할 수 있다.<sup>6)</sup>

## (2)역사적 배경

제주의 역사는 건국신화를 지닌 ‘탐라국’에서 시작된다. 당시 지배자는 왕 · 성주 · 왕자라 불렸으며, 가야 · 백제 ·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왕국을 유지했다. 탐라국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왕조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에는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태자에게 탐라국 지배를 허락하며 성주 작위를 하사 하였다고 한다. 고려 의종 7년 11월에 ‘탐라현’으로 개편되고, 후에 고려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독립국 지위를 상실했다.<sup>7)</sup>

고려는 고종18년(1231)부터 고종 46년(1259)년까지 28년 동안 몽고로부터 7차례 침략을 받았다. 이로 인한 막심한 피해가 누적되자 고려는 몽고와 친선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반하여 몽고에 대한 저항을 주장한 삼별초는 고려 조정의 관리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결국 삼별초는 수령 김통정을 필두로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게 쫓겨 탐라로 거점을 옮겨 마지막 항쟁을 하게 된다. 김통정은 탐라에 항과두성을 축조하는 한편 군사진영을 정비하여 내륙으로 반격을

6) 제주문화원 사이트( [http://jejucc.kr/bbs/board.php?bo\\_table=culture&wr\\_id=39](http://jejucc.kr/bbs/board.php?bo_table=culture&wr_id=39))

7) 전경수(2013),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p.106.

시도하였다. 삼별초는 맹위를 떨치며 2년 반 동안 여몽연합군에 대항하였지만 끝내 패하였고, 삼별초 영웅들의 이름은 항파두 사적에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삼별초는 탐라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수도에 유행하던 문물의 전래다. 삼별초와 함께 탐라로 이동한 일부 문인과 승려들로부터,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탐라에 수도의 언어와 풍속이 전해졌을 것이다. 둘째, 농업 및 산업의 영향이다. 삼별초가 자급자족을 위해 벼농사와 양잠을 시작하며 농업 관념과 기술이 개선되었으며, 건축법과 도자기 굽는 요업 등이 보급되었다. 셋째, 향몽 정신이다. 몽고의 노예가 될 바에는 죽음을 택한다는 삼별초의 결연한 의지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몽고의 지배 속에 제주인 들의 설움과 괴로움을 이겨내게 하였다.<sup>8)</sup>

몽고의 제주지배시기에 형성된 목마경제는 제주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인구 증가로 이어졌지만, 조선 건국과 함께 중앙정부에 의해 목마업과 말의 자유교역이 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주인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에서의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주로 지방 관리와 유배당한 양반들이 출입하였다. 관리로 파견된 자들은 중앙과 왕래가 쉽지 않기에 고립된 채 승진에 불리하게 적용될까 두려워하여 제주에 부임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고 한다. 제주목사가 근무한 관청에는 ‘서울을 향해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뜻의 망경루가, 조천에는 ‘북쪽을 사모하는 정자’라 하여 연북정이 있었으니, 제주도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땅이었던 것이다.<sup>9)</sup>

이처럼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제주도로 파견된 관리들은 성심껏 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태한 관리로 인해 제주 백성들의 삶의 고통은 막심했으며, 조선후기에 발생한 민란 중 제주민란이 유독 빈번했던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제주에는 주로 일반 범죄자가 아닌 정치범들이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이는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던 제주도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유배자 중에는 소현세자의 삼남인 석견,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던 승려 보우, 광해군, 우암

8) 김봉욱(2000),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p.69.

9) 이영권(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p.162.



송시열, 추사 김정희 등 식견이 높은 인물이 다수 있었다. 특히 우암 송시열의 짧은 유배기간동안 제주사회에 유교적 교화가 융성하였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서 추사체와 세한도를 완성하였으며, 구한말에는 최익현 및 민비 시해 사건과 관련된 운양 김윤식과 태극기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박영효가 유배당했다. 박영효는 제주 유배 당시 학교를 설립하고 원예농업을 보급하는 등 제주도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이렇듯 제주는 독특한 방식으로 외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접하며 나름대로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제주인들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 · 문화적으로 소외받아 왔으나, 결국 제주인 특유의 강인함으로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었다. 이러한 강인함이 오늘날 제주도의 문화를 이루었다.

## 2) 제주 향토문화의 이해

제주도 사람들은 조선 후기까지도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육지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었다. 모든 제주인들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배를 탈 수 없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육지 나들이가 불가능했다. 출륙금지령은 200여 년간 계속되다가 조선 말기에 와서야 해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지역의 전통문화가 강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또한 제주의 전통문화에는 환경적 악조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흔적 속에서 제주인만의 강인한 정신세계와 삶의 지혜가 그대로 서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제주도만의 특유한 향토성을 지니며 형성되고 보존되어온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세시풍속 · 민간신앙 · 생산기술 · 의식주 · 설화 · 통과의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민간 대중사회 속에서 해마다 같은 시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전승의례로서 각 현상마다 다양한 문화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내용에는 집안의 안녕을 위해 올리는 의례인 고사, 금기, 무속 등의 민속신앙을 비롯하여 음식, 복식, 예술, 농경생활 등에 이르기 까지 생활의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으며



풍속이란 뜻에서 지방색, 향토색을 강렬하게 풍겨주고 있다.<sup>10)</sup>

제주도의 세시풍속은 거친 자연에 맞선 제주인의 생활력과 도전 의식이 응결되는 만큼 생활문화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생활양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업·역사·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 지방색을 띄는 요소들 가운데서도 계절에 따라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지켜지는 세시풍속만큼 그 특성이 뚜렷한 것도 드물다.<sup>11)</sup> 이러한 제주도의 세시풍속을 이명준 외(1996)의 「제주의 전통문화」를 토대로 다음의 <표 1>를 작성하였다.

<표 1> 제주도 세시풍속 유형

기간	신앙과 관련된 세시풍속	생활과 관련된 세시풍속
1월	떡점·방쉬(액막이)·도채비방쉬	연날리기
2월	영등굿·해신제·요왕제	고사리꺾기, 미역해경
3월	한살명절, 묘제	
4월	초파일, 할마님 등국날	
5월	단오명절 - 줄 당기기	단오날 약초 캐기, 개역(미숫가루)
6월	밭 밟는 고사·제석할망 고사	모래 뜸질, 닭 잡아 먹는 날
7월	백중제(테우리 명절)	물맞이, 갈옷 만들기
8월	모듬벌초, 팔월추석 마불림제	출 베기·말뚱 줍기
9월	철갈이, 무조 탄신일(초공본풀이)	동백기름 짜기
10월	시만국대제(추수감사의례), 귀표고사	
11월		동지팥죽, 장담기, 엿만들기, 지붕잇기
12월	신구간, 입춘(새철 드는 날), 입춘 굿	접새잡기(추렴)

10) 비교민속학회(2003), 「민속과 교육」 민속원, p.160.

11) 진성기(2010), 「제주의 세시풍속」 디딤돌, pp.14~15.

<표 1>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시풍속 중 영등굿, 백중제, 시만국 대제, 무조탄신 일과 같은 유형들은 그 유래가 설화의 내용에 담겨 있으며, 신앙적 세시풍속인 동시에 민간신앙으로도 분류되어 진다. 이와 같이 제주의 각 문화요소들은 서로 공존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민간신앙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제주인의 신앙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랫동안 전승된 자연신앙이다. 민간신앙은 그 민족의 독특한 신앙이 되며, 범위도 한 민족, 한 국가 내의 한 마을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서민층에 그 기층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 범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공동체 신앙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민간신앙은 생활을 통해 전승되어 온 만큼 생활 속에 용해되어 생활문화, 생활의식 나아가 특정지역의 사회심리를 형성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은 그것이 액을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대중의 사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역사·사회 상황에 기층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신앙은 한국사회라는 보편성 속에서 제주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특수성과 제주인의 심리적 특성을 읽어 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무속신앙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 제주문화의 맥락에서 민간신앙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무속신앙을 떠올릴 정도로 무속신앙과 민간신앙은 서로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민간신앙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계절제, 가신신앙, 마을신앙, 자연물신앙, 점복, 기우제, 민간의료 등을 관장하는 의례집진자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오랫동안 제주인들의 길흉화복과 흥망성쇠를 점치고 기원해 온 뿌리 깊은 무속신앙으로, 제주인들의 고단한 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의례였다. 그 내용으로는 매우 다양하며,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12) 이명준 외(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 교육청, p.389.

13) 신상범(2014),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p.494.

<표 2> 제주도 민간신앙의 유형

내용	의례 집전자	길흉화복/홍망성쇠에 따른 민간신앙의 종류	
		개별(집안, 가족)	집단(마을)
홍 (길, 복)	심방	철갈이, 문전제, 요왕제 성주풀이, 아기비님, 칠성제, 산신놀이	마을제:당제 및 포제 - 당제 : 영등제, 백중제, 시만국대제 - 포제 : 동제, 정포제, 농포제
	보살	제수(학업, 사업, 건강, 혼인) 성주풀이, 칠성, 산신, 용왕 등	
	정시 (지관)	이사 및 유학 방위 결정 사주, 택일, 집터, 토신제(집터의 신)	설촌의 철학(풍수) 위인의 생가(풍수) 마을의 각종 제일, 택일
	기타	신구간(이사), 입춘, 동짓날 등 세시풍속	수호신제(돌하르방)
망 (흉, 화)	심방	귀양풀이, 천도재, 넓들이 액막이 병굿, 두린굿(정신병 치료) 불찍굿(화재 후 액막이) 영감놀이(도채비신 퇴치)	마을돌림병 퇴치굿 (질병, 화재 예방) 4·3 무혼굿 기우제 산신제(액막이)
	보살	귀양풀이, 천도재, 넓들이 액막이 병굿(정신병 및 불치병) 수명점	
	정시 (지관)	방위로 병의 원인과 치료법 제시 음택(뭇자리)	마을의 묘지(음택):풍수 방사탑 조성
	기타	침술	백조일손제사

<출처> 신상범(2014), 「제주생활 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p.498.

<표 2>를 통해 민간신앙 의례는 개별과 집단으로 열리고 있으며, 점과 의례는 개별과 마을에 재난이 생긴 후 액막이를 하였고, 또 액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방과 보살 들이 행하고 있다. 제주도 민간신앙은 심방과 심방의 굿 의례가 뿌리 깊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생산기술

생산기술은 지역마다 환경적 조건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지역의 생활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섬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생산기술이 형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농업과 어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농업(밭농사)

화산섬인 제주도의 토양은 돌이 많다. 그로 인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내기가 어려웠고, 경작토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농기구의 크기도 한반도 타 지역들에 비해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반도에 우경이 보급 된지 무려 160여 년 후에도 괭이같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 까닭은 한반도와는 다른 토양의 조건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농경 법은 크게 따비같이법과 쟁기 같이법으로 나뉜다. 따비같이 법은 2인1조형과 1인 1조형이 있는데



<그림 1> 농기구(좌:외따비, 우:쌍따비)

땅의 우측과 좌측으로 왕복해 가며 땅을 파고 골을 내며 파낸 흙을 반대쪽으로 덮는 방식이다.<sup>14)</sup> 그리고 척박한 토양에 농사를 짓기 위해 화학비료가 보급되기 전에는 다양한 거름을 사용하였다. 거름의 종류는 장 콩을 이용한 거름 콩, 바닷모래 거름, 바다고기 거름(말린 멸치와 고등어), 바닷풀 거름(해초류), 돛 거름(돼지배설물), 재거름, 오줌거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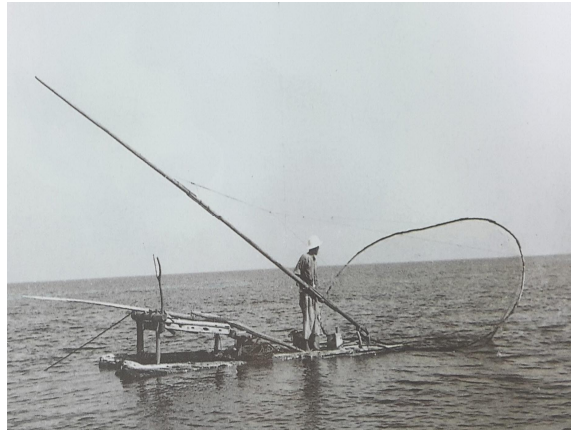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 조건은 제주인 들에게 제주만의 농기구를 만들게 하였으며, 비옥도가 떨어지는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으며 생존하기 위해 제주도 특유의 거름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경상황은 제주인 들의 식문화로 이어진다.

#### ② 어업

제주바다는 제주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외부와의 문화교류의 장이었으며,

14) 고헌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p.32.

연결통로였다. 제주도의 바다는 화산이 폭발 하면서 솟아난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렇듯 제주도의 바다는 한반도의 다른 바다와 다르다.



<그림 2> 제주도 테우

이러한 제주도의 독특한 바다의 조건대를 제주사람들은 ‘갯바탕’(갯바닥)이라고 불렀으며 조건에 따라 셋으로 분류 하였다. 첫째, 펴로 이루어

진 해안가를 펴바탕, 둘째, 모래가 깔려있는 곳을 백사장, 셋째, 암반이나 돌이 깔려 있는 곳은 ‘갯개’라 하였다.

그리고 조건대와 가까운 바다는 조건에 따라 ‘머들밭’과 ‘펼바다’로 나뉜다. 첫째, ‘머들밭’은 돌로 이루어진 곳으로 암반 ‘너르박’ 과 돌맹이 ‘머들’이 있어 크게 ‘머들밭’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 가지 해조류와 전복, 소라, 홍합, 해삼 등 해산물이 서식할 수 있다. ‘펼바다’는 바다 속 지질이 펴이나 모래가 섞인 곳으로 여기에는 각종 양식업과 함께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서식하므로 낚시와 그물 어로의 마당이 된다.<sup>15)</sup>

이러한 제주의 바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어로활동이 있어 왔는데, 유적에서 출토된 그물추와 낚시도구 등의 유물과 당시 먹고 버린 각종 조개나 전복 껍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sup>16)</sup> 이와 같이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다가 제주인들의 중요 생활터전으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과 현재와 같이 그물과 낚시를 이용한 어로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주도의 어업기술은 ‘테우’를 이용한 어업활동과 ‘원담’(돌그물)을 활용한 어업 기술과 해녀들의 ‘물질’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테우’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구상나무를 베어 6개월 이상 바닷물에 담갔다가 말려 만든 배이다. 테우는 돛을 달지 않았다. 대신 바다 속에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르래를 달기위해 돛대가 필요했다. 방향키가 없어서 노가 방향

15)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p.32.

16) 제주대학교 박물관(2012), 「제주의 바다, 땅 그리고 사람」 제주대학교, p.12.



<그림 3> 물질도구(우 : 빗창, 좌 : 호맹이)

<그림 4> 제주도 우도면 원담

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겸하였다. 그리고 배를 묶어두기 위한 닻은 돌에 구멍을 뚫어 줄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테우’를 제주사람들은 멸치잡이와 자리잡이, 갈치잡이와 한치잡이 등과 각종 해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둘째, ‘원담’(돌 그물)은 해안가에 돌담을 쌓아두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사가 원만하거나 포구형태의 지형에 돌담을 쌓아 둘러막아 놓고 밀물에 돌담을 넘어 들어온 바닷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쉽게 고기를 잡았다. 썰물이 되면 원에 갇힌 고기를 어중에 따라 족바지(뜰채)로 뜨거나, 작살을 쏘아 잡기도 하고, 그물을 쳐두었다가 잡기도 한다. ‘원담’은 마을 공동소유로 만들어 지고 관리하며 풍어를 기원하면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곳은 한림읍 금능리, 제주시 외도동 연대마을, 구좌읍 하도리, 우도 등이 있다.<sup>17)</sup>

셋째, 해녀들의 ‘물질’은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 속에서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어업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녀가 암반이나 돌무지가 있는 수심 10~20m 정도의 깊이에서 1~2분 남짓 동안 무호흡으로 해산물을 채취 하는 어업형태이다. 채취하는 해산물은 미역·우뭇가사리 등 해초와 소라, 오분자기, 전복, 성게, 문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녀들은 채취물의 종류에 따라 도구들을 고안하여 사용했다. 해초류를 채취할

17)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민속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p.253.



때는 물낫, 전복을 돌에서 떼어내는 빗창, 소라를 잡는 호맹이,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작살 등이 있다. 18)

조선시대에는 미역과 전복 등을 조정에 진상품으로 바쳤는데, 이를 감당해내기 위한 해녀들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러 전복을 먹지 않았던 임금과 관리에 대한 기록도 있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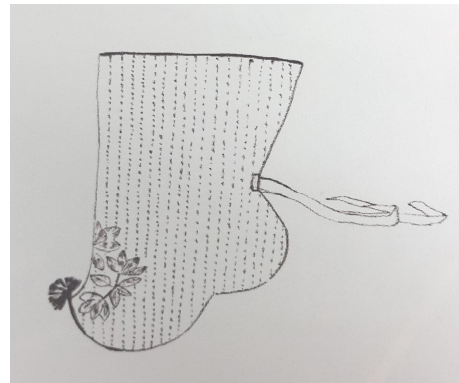
이러한 해녀의 물질은 단순히 제주도만의 어업활동이기 보다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보존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의식주

제주도의 의식주 문화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문화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만의 특유한 환경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삶을 통해서 형성된 향토문화는 그 지역의 의식주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기에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사람들의 의식주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① 의생활

제주의 의생활은 척박하고 넉넉지 않은 환경의 영향으로 주로 소박하고 간편한 형태이다. 그리고 의복에 바람과 염원을 담아 입는 이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다. 그 예로 태어난 아기에게 입히는 베넛저고리인 복뒤창옷은 아기의 질병을 예방하고 무탈하게 자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걸음마하는 아기에게 백 줄의 누빔 줄을 새긴 타래버선을



<그림 5> 타래버선

을 신겨 장수를 비는 풍습을 들 수 있다. 그 외로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의복은 평상복인 갈옷과 피복, 해녀들의 물웃이 있다.

평상복인 피복은 추위와 더위에 강한 의복으로 동물의 털가죽과 풀이나 덩굴, 짚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20) 풍족하지 못한 제주의 환경

18) 제주대학교 박물관(2012), 「제주의 바다, 땅 그리고 사람」 제주대학교, p.22.

19) 유철인 외(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 p.18.

20) 이명준 외(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 교육청, p.57.



<그림 6> 해녀복(좌 : 물적삼, 우 : 물소중이)



<그림 7> 우장

에서 자연이 주는 재료를 사용한 의복은 제주인들에게는 필연적 선택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을이 되면 제주의 들판에 자라는 ‘새’를 이용해 만든 ‘우장’이 있다. ‘우장’은 비오는 날 사용되었던 비옷으로 제주도의 특수한 고유 복장이다.

다음으로는 ‘갈옷’이다. ‘갈옷’은 7~8월의 덜 익은 풋감즙으로 염색해서 만든 제주도의 민속 의상으로 노동복이나 일상복으로 입었으며 ‘갈등지계’, ‘갈적삼’, ‘갈중이’ 등으로 불린다.<sup>21)</sup> 갈옷은 더러움을 덜타 손질과 세탁이 쉬워 경제적이었으며 위생적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바쁘고 억척같은 제주인들의 삶에 적합한 의복으로 착용되었다. 그리고 제주인들의 특유한 생활상과 강인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해녀들의 의복인 ‘물옷’이 있다.

‘물옷’은 제주여성의 대표적 직업인 해녀들이 물질할 때 착용한 옷으로 ‘소중이’, ‘물소중이’, ‘속곳’, ‘해녀복’ 등으로 불린다. ‘물옷’은 하의인 물소중이, 상의에 해당하는 ‘물적삼’,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물수건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2)</sup>

지금은 해녀들이 고무로 만들어진 잠수복을 착용하고 물질을 하고 있지만, 오래전 제주의 해녀들은 물속에서 보온이 전혀 되지 않은 천으로 된 물옷을 입고 작업을 하였다. 제주의 차디찬 바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억척같이 삶을 연명해 나간 해녀들의 생활력과 정신력은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② 식문화

제주의 식문화는 화산섬과 바다라는 생활터전을 바탕으로 독특한 생활방식을

21) 현용준(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p.82.

22) 강권용 외(2012), 「제주 해녀 옷 이야기」 해녀박물관, p.10.



빛어내었으며 그 속에는 자급자족의 철칙과 절약정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제주속담인 ‘범벅도, 부자간에 금을 그어 먹어라.’, ‘제주 사람은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주머니만은 차고 죽는다.’ 등이 그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sup>23)</sup>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넉넉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항상 아끼고 절약한 제주인들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부분이다.

제주인들의 주 식재료로는 보리와, 조, 피, 콩 등으로 밭농사에 용이한 곡식들이었다. 화산점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논농사 보다는 밭농사를 통해 곡식을 얻었다. 그리고 바다와 가까운 생활환경으로 해산물이 주식재료가 되었다. 반찬은 ‘출래’라고 하였으며, 주로 먹었던 반찬종류로는 된장과 같은 장류와 젓갈 장아찌 등 저장음식이었으며, 육류는 명절이나 잔치 때나 간혹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음식이 귀한 제주에서도 통과의례를 지낼 때만큼은 여러 음식을 차렸는데 이는 김지순(2001)의 「제주도 음식문화」를 토대로 <표 3>과 같이 정리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표 3 > 제주도 통과의례 음식

구분	제주도 통과의례음식
출산음식	생계란 5개, 메밀수제비, 미역국, 팔밥
백일상	떡
돌상	쌀밥, 미역국, 떡, 전, 돼지고기, 회
혼례음식	쌀밥, 옥돔 국, 오색시루떡, 닭고기, 돼지고기, 밥, 대추순대, 전 등
제례음식	쌀밥, 생선미역국, 떡, 적, 전,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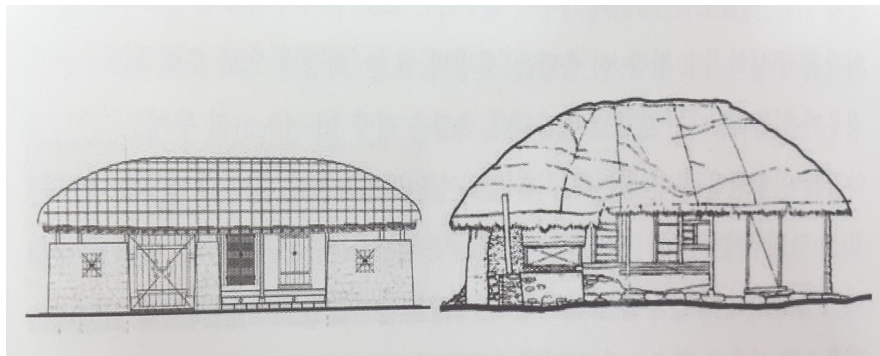
<표 3> 의 출산음식에서 생 계란은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 할 때 먹었다고 한다. 메밀수제비는 출산 후 출혈이 멎는다 하여 먹인 음식이다. 백일상은 궁핍한

23) 김지순(2001), 「제주도 음식문화」 제주문화, p.65.

제주인들의 생활사정 상 모든 집안에서 차리지는 못하였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차려 떡을 돌렸다. 돌상은 60~70년대부터 차리기 시작하였고, 돌상을 차리지 않은 집도 많았다.<sup>24)</sup> 혼례와 제례는 제주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의례로 가장 많은 음식을 차려내었는데, 특히 제례를 더 중요시 여겨 상차림과 모심에 더 각별히 예를 다했다.

### ③ 주거문화

제주도 주거문화는 환경적 영향과 한반도 본토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으로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와 철저한 별동배치 형식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무속적 사고와 풍수지리의 영향과 기후, 가족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뚜렷한 지역적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제주도의 주된 주거 형태는 제주도의 자생풀인 ‘새’를 이용하여 지붕을 올린 초가집이다. 제주의 초가집은 제주의 환경적 요소가 잘 반영된 것으로 특히 지붕의 형태에서 그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데 한반도 본토의 가옥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8> 제주초가와 육지초가 비교(좌 : 제주초가, 우 : 육지초가)

초가지붕의 용마루나 처마마루 등에 ‘용마름’을 깔지 않고 ‘새’를 두껍게 덮어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감하고 집 줄로 잡아매어 마감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다. 지붕의 경사는 30° 정도이며 새가 두껍게 깔린 지붕 이엉, 지붕을 잡아맨 지붕 줄, 짧은 지붕처마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제주의 강한 바람을 고려한 결과인 것이다.<sup>26)</sup> 집안의 구성으로는 제례 등을 지내는 ‘상방’, 일상생활이 이

24) 김지순(2001), 「제주도 음식문화」 제주문화, pp.83~85.

25) 제주도 건축사회(1992),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2집」 濟州道建築士會, p.139.

26) 김광수(2015), 「제주건축역사」 제주건축사 협회, p.101.

루어지는 ‘구들’, 부엌인 ‘정지’, 곡식류를 저장하는 ‘고팡’, 식사공간으로 ‘챗방’, 난방을 위해 불을 때는 공간인 ‘굴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코스로 유명한 ‘올래길’은 골목길을 뜻한다. 제주의 ‘올래’는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기 위한 진입로의 개념으로 제주인 들은 이를 이웃과 공유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9> 제주도 정낭

제주도에는 특히 대문이 발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온다습하고 바람이 심해서 대문과 함께 올래 담까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만의 독특한 대문인 ‘정낭’을 두게 된 것이다.

#### (5) 설화

설화는 나라와 지역민들의 생활과 역사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구전문학이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한라산을 신성시하여 신령의 존재를 믿고 기원을 해왔으며, 그 믿음은 제주도의 많은 설화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설화는 흥미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지역의 역사와 풍속, 관습, 신앙, 사상, 감정들이 담겨 있으며, 조상들의 삶과 유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sup>27)</sup>

특히 제주도는 여성중심의 생활문화로 인해 설화의 내용에 설문대 할망, 백조 할망, 영등할망 등 남신보다 여신의 수가 월등히 많이 존재하여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과 관련되어 내려오는 전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천지창조신 개국시조 삼성신화를 비롯해서 그리스 신화 못지않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설화를 진성기(1996), 「제주도의 전설」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간신앙의 무속적 설화와 지역민들의 지연적 설화, 제주도의 특유한 풍속을 담고 있는 토속적 민담 설화, 설화적 요소를 가미한 역사적설화로 나누어 <표 4>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27) 고찬화(2004),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p.3.

<표 4> 제주도 설화

구분	제주도 설화
무속적	소천국, 일문관바람운, 강림, 남선비, 마통이, 산굼부리, 영등할망, 영등대왕, 자청비, 한락등이, 허웅아기, 애기씨, 토산당과 뱀신
지연적	모반양반과 사냥꾼, 서불과 불사약, 쇠죽은 못, 여우 물, 연하못, 용머리바위, 광정당과 뱀, 등대봉과 신, 뱀굴, 산방덕, 싹섬과 뱀, 오백장군, 하르방당과 할망당, 백중제, 돌하르방, 오현단, 월계진 좌수, 절부암
토속적 민담	녹일국 정명수, 눈 봉사와 앓은뱅이, 선비와 혼령, 처녀귀신과 소금장수, 황 지네와 거지, 겁살인, 곰보색시, 마누라와 주머니, 말이 없는 며느리, 산 터를 다툰 부자, 야구봉이와 두루봉이
역사적	방성철의 싸움, 호종단과 차귀섬, 황바도리와 김통정, 군산의 폭발, 만덕 할망, 목장의 기원, 열녀부씨의 아내, 매고할망, 이어도, 녹핀영감, 무쇠철망, 산산이 도운 청년, 산호수와 माम신, 저승할망, 콩쟁이와 팥쟁이, 이재수의 싸움, 주천석과 만산장

<표 4>와 같이 제주도의 설화는 탄생설화부터 시작해서 삶에 스며들어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으며, 녹록치 않은 환경과 싸우며 일궈온 제주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안에는 삶의 애환과 해학, 권선징악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제주인의 고단했던 삶을 희망과 꿈으로 승화시킨 제주인들의 지혜와 상상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설화는 제주의 탄생설화부터 시작해서 삶에 스며들어 역사화 함께 존재해 왔다.

#### (6) 통과의례

통과의례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한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이때 치러지는 중요한 형식적 의례를 뜻한다. 그 종류에는 출산의례, 혼례, 상례 등이 있다. 즉, 통과 의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대상이 된다.<sup>28)</sup> 제주도에서 행해지던 통과의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 요소도 있으나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그로인한 특유한 생활문화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의례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의례이다. 출생의례는 아기탄생을 기원하는 시기부터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태어난 후 1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제주의 임신기간 동안 태교와 관련된 금기사항을 살펴보면, 흥한 것을 보지 말라, 살생을 하지 말라,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 담을 넘으면 도둑을 낳는다하여 담을 넘지 말 것이며, 태어나는 아기가 부스럼이 잘 일어난다 하여 부뚜막에 다리를 올리는 것도 금기시 하고 있다. 그리고 첫아가 태어날 때 남편이 옆을 지키거나, 배위에 남편의 바지를 덮어주면 순산한다는 속설도 있다.<sup>29)</sup>

그리고 의생활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어난 아기에게 ‘복뒤창옷’을 입히는 것도 아기의 질병을 막아주고 장수를 비는 것으로 출생의례에 속하는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몸이 약하거나 액운을 타고 태어났을 경우에는 15살 전후 까지 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러 액운을 막는다는 속설도 있다.

둘째, 혼례는 남녀가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집안을 번성하게 하는 일로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성대하게 치러지던 의례이다. 제주도 혼례의 특징은 혼례를 치르는 기간이 5일 정도로 길고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치르는 의례가 많다. 특히 제주의 혼례는 마을의 잔치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먹고, 어울렸다. 그러한 과정에서 마을 사람의 관계가 돈독하여 지고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잔칫날 3일 전에는 ‘뚝 잡는날’ 이라 하여 돼지를 잡았으며, 그날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 ‘가문잔치’를 벌인다. 다음날은 사돈댁에 이바지 음식을 보낼 준비를 하고 보통 돼지1마리, 술, 닭, 달걀 100개가 이바지 음식에 속한다. 다음날은 폐백과 예장을 가지고 신부집으로 가고, 신부집에서 예장이 통과되면 ‘문전제’를 지내고 신랑은 신랑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신부집에서 잔치가 끝나면 신부는 신랑집에서 신부상을 받는다. 이때 신부상을 받고 난 후 시어머니가 해주는 옷으로

28) 이명준 외(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 교육청, pp.338~340.

29) 상계서 p.363.



같이 입고 ‘고팡’을 향해 앉아 있어야 한다. 앉아 있는 신부에게는 친척들이 돌아가며 선물을 준다. 그럼 그 대가로 신부는 다음 설 때 버선 한 켤레씩을 선물하였다. 30)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혼례의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 볼 부분은 여인들이 부지런히 물질을 해 모은 돈으로 직접 혼수장만을



<그림 10> 제주도 동자석

한 것이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았던 제주여인들의 자립심과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제주의 상례는 제주의 가뭄과 폭풍, 전염병, 자연 재해와 왜구침입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반영한 것이다. 가혹한 현실의 삶이 고단하여 의지할 곳이 신과 조상에 대한 기원뿐이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생일보다 제사를 유독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무덤의 산담이나 석물 역시 조상을 위해 잘 만들어 세웠으며, 31) 무덤 보호를 위해 네모난 돌담을 무덤 주변에 설치하였다. 그 안에 망자의 신분과 염원을 상징하며, 망자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동자석을 세워두고 조상의 명복을 빌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향토 문화는 화산섬이라는 척박한 환경, 그에 따른 생활양식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오며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도 특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제주도의 거친 토양은 제주인들에게 밭농사뿐 아니라, 바다까지 생활터전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제주인들에게 절약하고, 서로 돕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제주여성들에게는 강인한 생활력과 독립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주인의 고단한 삶의 의지로 삼았던, 신과 조상에 대한 기원과 믿음은 제주의 세시풍속, 민간신앙, 설화 등을 형성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듯 제주의 각 문화요소는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성과 삶의 의지, 지혜가 담겨 있으며 제주만의 특유성을 지닌 향토문화로서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가치 있는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30) 현용준(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pp.150~152.

31) 김유정(2011), 「제주풍토와 무덤」 오디콤, p.68.

### III.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지도 방안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생활전반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지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의 민간신앙, 세시풍속, 생산기술, 의식주, 통과의례, 설화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미술표현 활동으로 구성된다.

#### 1. 교수·학습 계획

미술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한국적 미의식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술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의 실생활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고, 늘 함께 생활해 왔던 지역 문화 교육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아동들에게 제주향토문화를 미술교육에 적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술표현 활동을 통해 제주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고, 미술의 표현력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 1)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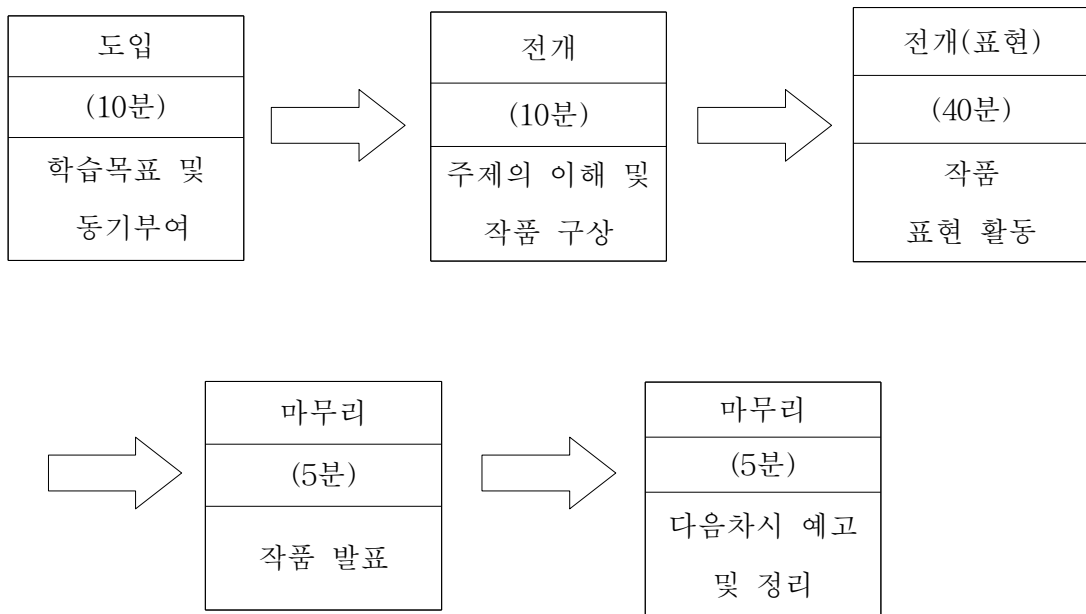
- (1) 제주향토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 (2)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온 향토문화 요소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 (3) 제주향토문화 요소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 (4) 다양한 미술표현 활동을 통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2) 지도 및 유의사항

- (1) 제주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미술활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 유발을 위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지도한다.
- (3)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순회 지도를 한다.
- (4) 완성된 작품에 대해 아이들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확인 할 수 있다.
- (5) 완성된 작품은 잘 보관하여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둔다.

3) 수업모형

본 모형은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학습과정으로 <그림 11>과 같이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수업모형



#### 4) 학습계획

본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미술표현수업은 지역 아동센터내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향토문화에 대해 알고,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표현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미술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 계획은 6차시로 학습 과정안을 계획하여 <표 5> 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5>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차시별 교수 · 학습 계획			
차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학습자료
1차시	‘영등굿’ (배방선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굿’에 대한 이해</li> <li>· ‘영등굿’에 등장하는 ‘배방선’을 직접 만들어 보기</li> </ul>	PPT자료(영등굿에 관한 설화 와, 그림 자료), 재활용품, 빨대, 나무젓가락, 테이프, 본드, 색종이, 풀, 가위, 네임 펜, 크레파스, 색글판지
2차시	‘월담’ (바다풍경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담’에 대한 이해</li> <li>· ‘월담’을 그려 넣은 바다풍경 그리기</li> </ul>	PPT자료(‘월담’에 대한 자료와 사진자료), 캔트지,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물감, 물통, 파레트, 붓, 연필, 지우개
3차시	‘도체비 방쉬’ (행운의 허수아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시풍속과 ‘도체비 방쉬’에 대해 이해하기</li> <li>· ‘도체비 방쉬’를 변형하여 행운의 허수아비 만들기</li> </ul>	PPT자료(‘도체비 방쉬’에 대한 자료, 사진), 클레이, 이쑤시개, 헌옷(천), 가위, 본드, 양면테이프, 한지, 풀, 나무젓가락, 종이컵, 스티로폼 볼,

4차시	‘타래버선’ (종이버선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음마 하는 아이들에게 신겼던 ‘타래버선에 대한 이해</li> <li>· 자신만의 개성 있는 타래보선 표현하기</li> </ul>	PPT자료(‘타래보선’에 대한 자료와 사진), 타래보선 틀, 여러 가지 색 한지, 색종이, 풀, 방울, 구슬, 실, 연필, 지우개
5차시	‘동자석’ (꿈을 담은 동자석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자석’에 대한 이해</li> <li>· ‘동자석’을 자신의 꿈을 담은 동자석으로 표현하기</li> </ul>	PPT자료(동자석에 대한 자료, 사진), 찰흙, 판, 플라스틱 조각도, 칼라 클레이
6차시	‘설문대 할망’ (설화의 한 장면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설화’에 대한 이해와 ‘설문대 할망’ 설화 알기</li> <li>· 설화의 한 장면 상상하여 그리기</li> </ul>	PPT자료(설화에 대한 자료, 동영상, 그림), 캔트지,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펜, 물감, 물통, 연필, 지우개

<표 5>에서는 제주도 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제주향토문화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영등굿’ - 배방선 만들기 에서는 배방선을 재현해 보고 영등할머니에 관한 설화와 ‘영등 굿’에 관한 이해를 돕는 활동, ‘원담’ - 바다풍경 그리기는 제주인의 삶의 지혜가 담긴 ‘원담’의 이해와 ‘원담’을 그려 넣은 바다풍경 표현활동, ‘도체비방쉬’ - 허수아비 만들기 활동은 매년 액땀을 위해 만들어 지던 허수아비를 행운의 허수아비로 변형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타래버선’ - 종이 버선 만들기는 한지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표현활동을 통해 타래버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 ‘동자석’ - 꿈을 담은 동자석 만들기에서는 영혼들의 심부름꾼으로 무덤 앞에 세워진 동자석을 찰흙을 이용해 표현해 보는 활동, 또한 마지막으로 제주도 대표설화인 ‘설문대 할망’을 주제로 상상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제주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을 통해 표현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제주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학습 과정안 및 결과물

본 절에서는 제주도의 향토 문화를 담고 있는 세시풍속, 민간신앙, 생산기술, 의식주, 통과례, 설화의 내용 중에서 아동들의 미술수업에 적합한 요소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미술수업 학습 과정안을 구상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결과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 1)영등굿 - 배방선 만들기

제주의 민간신앙 중 하나인 영등신앙은 제주의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겨울과 봄의 전환기에 찾아오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2월의 풍속이다. 제주의 땅과 바다에 바람이 불어와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하는 풍년제로, 굿의 막바지에는 짚으로 만든 배방선에 재물을 실어 바다로 보냄으로써 영등신을 바다로 돌려보낸다. 이에 미술수업을 통해 배방선을 입체표현활동으로 재현해 봄으로써 배방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간감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과정안을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1차시 학습 과정안

단원 및 차시	대단원	제주향토문화의 이해	차시	1/6(70분)
	소단원	영등굿 - 배방선 만들기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민간신앙인 영등굿에 대해 알아보고, 배방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배방선을 소원을 담은 배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PPT자료('영등굿'에 관한 설화, 그림 자료), 재활용품, 빨대, 나무젓가락, 테이프, 본드, 네임 펜, 색종이, 색골판지		
	학생	지우개, 연필, 가위, 딱 풀, 네임 펜, 크레파스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학습 동기 유발	· 제주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 PPT 자료 (‘영등굿’에 관한 설화자료, 그림 자료)
	학습 목표 확인	·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민간신앙 ‘영등굿’에 대해 알아보고, ‘배방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배방선’을 자신만의 소원을 담은 배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전개 (50분)	‘영등굿’에 대해 알아 보기	· 영등굿에 등장하는 ‘영등할망’에 관한 설화를 통해 ‘영등굿’의 유래를 알아보고, ‘배방선’에 대해 설명한다.	· 빨대, 스카치테이프, 색종이, 지우개, 연필, 가위, 딱풀  · 순회 지도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 활동	· 자신의 소원을 담은 배방선을 구상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만의 ‘배방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완성 후에는 자신의 소원을 적어 넣은 뜻을 달 수 있도록 한다.	
정리 및 마무리 (10분)	정리	·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차시 예고  · 주변 정리 및 인사	

<표 7> 영등굿 - 배방선 만들기 작품평가

	<p>&lt;그림 12&gt;</p>	<p>자신이 직접 타고 여행하는 배를 상상하며 만들었다. 배의 모양과 실용적인 구조를 생각하며 화장실과 물건을 보관할 창고, 잠을 잘 수 있는 텐트까지 만들었다.</p>
	<p>&lt;그림 13&gt;</p>	<p>배에 물건을 실은 후 수수깡을 이용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뚜껑을 만들어 주었다. 밤이 되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뱃머리에 음료수 뚜껑을 이용해 라이트를 표현하였다.</p>
	<p>&lt;그림 14&gt;</p>	<p>수수깡을 이용하여 뗏목 형식으로 배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며 제작한 것은 돛이다. 특히 모양과 색의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소원을 돛에 기입하기도 하였다</p>
	<p>&lt;그림 15&gt;</p>	<p>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라는 꿈을 적은 리본 모양의 돛을 만들고, 배의 가장 윗 부분에 태극기를 달았다.</p>
<p>‘영등굿’과 ‘배방선’의 유래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배방선’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학생은 배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에 관심을 두었으며, 여학생은 구조적인 면보다는 돛의 모양과 색 등 배의 장식에 집중하며 제작하였다.</p>		

2)원담 - 바다풍경 그리기

원담은 제주도의 해안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인공 구조물이다. 해안가에 돌담을 둘러쌓아 두면, 밀물일 때 물이 담 안 까지 차게 되어 물고기가 들어오고, 썰물일 때는 담 구멍으로 빠져나가 담 안에는 물고기만 남게 된다.<sup>32)</sup> 담에 남아 있는 물고기는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잡고, 원담의 관리 또한 마을 단위에 서 공동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원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면 표현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화면 구성력과 색채감각을 기를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과정안을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8> 2차시 학습 과정안


단원 및 차시	대단원	제주 향토문화의 이해	차시	2/6(70분)
	소단원	원담 - 바다 풍경 그리기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어업기술이었던 원담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2. 원담이 있는 바다풍경을 상상하여 그릴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PPT자료(원담에 대한 자료), 캔트지, 물감, 물통, 파렛트, 붓		
	학생	연필, 지우개,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 펜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동기 유발	· 원담의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바닷가에서 원담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 PPT 자료 (원담에 대한 자료)
	학습 목표 확인	·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어업기술이었던 원담에 대해		

32) 현용준(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p.122.

		<p>설명 할 수 있다.</p> <p>2. 원담을 그려 넣은 바다풍경을 상상하여 그릴 수 있다.</p>	
	‘원담’에 대해 알아보기	·제주도의 어업기술이었던 원담에 대해 설명한다.	·캔트지, 크레파스, 색연필, 싸인 펜, 연필, 지우개
전개 (50분)	작품 활동	<p>·화면에 원담을 그려 넣은 바다풍경을 구상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p> <p>·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순회 지도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및 마무리 (10분)	정리	<p>·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p> <p>·다음차시 예고</p> <p>·주변 정리 및 인사</p>	·실기도구와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 9> ‘원담’ - 바다풍경 그리기 작품평가

 <p>&lt;그림 16&gt;</p>	<p>스케치 위에 빨간색으로 채색한 후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그려 넣어 돌담을 표현하였다. 꽃게와 물고기 등 바다 생물들을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잡을지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p>
 <p>&lt;그림 17&gt;</p>	<p>양쪽으로 나뉜 ‘원담’의 둥근 형태와 멀리 보이는 방파제와 등대를 표현하였다. 돌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채색하고 원담에 다양한 물고기를 가득 넣어 완성하였다.</p>
 <p>&lt;그림 18&gt;</p>	<p>화면을 가득 채운 ‘원담’의 형태가 인상적이다.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원담’을 그린 듯하다. 돌담의 형태와 채색을 표현하는데 주력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표현하였다.</p>
 <p>&lt;그림 19&gt;</p>	<p>아빠와 낚시 경험을 떠올리며 ‘원담’ 위에서 낚시하는 자신과 아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신이 알고 있는 물고기들과 그 이름들을 적어주고 바다의 물결까지 표현하며 채색하였다.</p>
<p>제주도민들이 예로부터 ‘원담’을 이용해 온 유래를 알 수 있었으며, 바닷가에서 놀면서 ‘원담’을 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화면을 구상해 나갔다. 아동들마다 직접 보았던 ‘원담’을 각기 다른 형태와 색으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다.</p>	



3)도채비 방쉬 - 행운의 허수아비 만들기

도채비 방쉬란 매해 정월 대보름에 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얼굴을 그린 뒤, 나쁜 운을 소멸해 달라는 말을 하고 길거리나 바닷가에 버리는 것으로 액막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sup>33)</sup>

도채비 방쉬 전통을 학습하면서 아동 교육이라는 과제의 특성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긍정적인 인상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의 도채비는 액막이의 대상이 아닌,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나 마스크트와 같은 소재로서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세시풍속의 하나인 도채비 방쉬를 이해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 과정안을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0> 3차시 학습 과정안

단원 및 차시	대단원	제주향토문화의 이해	차시	3/6(70분)
	소단원	도채비 방쉬 - 행운의 허수아비 만들기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학습 목표	1.제주도의 세시풍속인 도채비 방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도채비를 자신만의 ‘행운의 허수아비’로 표현해 낼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PPT자료(도채비 방쉬에 대한 자료), 클레이, 흰 옷(천), 양면테이프, 스티로폼 볼, 나무젓가락, 고무줄, 한지, 색종이, 종이컵		
	학생	연필, 지우개, 가위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동기 유발	· 허수아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 PPT 자료 (‘도채비 방쉬’에 관한 자료, 그림 자료)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세시풍속인 도채비 방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3) 진성기(2010), 「제주의 세시풍속」 제주민속 연구소, pp.39~40.

		2. 도채비를 자신만의 ‘행운의 허수아비’로 표현해 낼 수 있다.	
전개 (50분)	‘도채비 방쉬’에 대해 알아보기	· 제주도의 세시풍속인 도채비 방쉬에 대해서 설명한다.	·클레이, 현 옷(천), 양면 테이프, 스티로폼 볼, 나무젓가락, 고무줄, 한지, 색종이, 연필, 지우개, 가위
	작품 활동	·도채비 방쉬를 변형한 자신만의 행운의 허수아비를 구상하고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순회 지도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및 마무리 (10분)	정리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차시 예고 ·주변 정리 및 인사	·실기도구와 주변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 11> 도채비 방쉬 - 행운의 허수아비 만들기 작품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20&gt;</p>	<p>칼라 점토를 스티로폼 볼에 붙여 얼굴을 표현하였다. 평소 좋아하는 용을 그려 넣고, 칼을 잡고 있는 허수아비를 만들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21&gt;</p>	<p>색종이와 골판지를 오려 붙여주어 누더기 느낌을 내었고, 손에는 흰 옷을 잘라 핸드백을 만들어 주었다. 모자는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만들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22&gt;</p>	<p>가장 먼저 스티로폼 머리에 붙고 긴 머리카락을 만들었고, 흰옷을 사용해 모자를 씌웠다. 색종이를 붙여 만든 옷에는 친을 잘라 하트모양의 포인트와 하늘색 레이스를 표현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23&gt;</p>	<p>유행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자신의 허수아비에 사용한 작품이다. 몸통의 뼈대인 나무젓가락에도 캐릭터의 이미지에 맞게 노란색 색종이를 감아 붙여 주어 완성하였다.</p>
<p>도채비 방쉬 제작 활동을 통해 매년 액땜을 위해 도채비를 만들던 유래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행운의 허수아비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은 좋아하는 캐릭터를 적용하였고, 여학생은 옷과 머리카락 표현에 집중하였다.</p>	

4)타래버선 - 종이 타래버선 만들기

제주도 전통의 특색은 특히 의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정도로 제주도민들은 의복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이들은 환경에 맞게 일상복과 노동복을 만들어 착용하였으며, 해녀들의 물질을 위한 ‘소중기’나 제주도 전역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새’를 이용한 ‘우장’이라는 비옷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본 학습에서는 다양한 의복들 중에서도 아기들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신겼던 타래버선에 대한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한지 풀라쥬 기법을 사용하여 타래버선을 제작해 보기 위한 학습 과정안을 <표 1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2> 4차시 학습 과정안

단원 및 차시	대단원	제주향토문화의 이해	차시	4/6(70분)
	소단원	타래버선- 종이 타래버선 만들기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의생활의 하나인 타래버선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2. 타래버선을 한지 풀라쥬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타래버선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PPT자료(타래버선에 관한 자료), 한지, 버선 틀, 방울, 실, 색종이, 구슬, 반짋이, 테이프, 문양도안		
	학생	연필, 지우개, 가위, 풀, 싸인펜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동기 유발	·아동들이 아기 때 입었던 옷들에 대해 질문하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의생활의 하나인 타래버선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2. 타래버선을 한지 풀라쥬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타래버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PPT 자료 (타래보선에 관한 자료, 그림 자료)

전개 (50분)	‘타래버선’ 에 대해 알아 보기	·타래버선의 사진자료와 함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지, 버선틀 방울, 구슬, 색종이 반짝이, 테이프, 문양도안, 연 필, 지우개 가 위, 풀, 싸인펜
	작품 활동	·교사가 나누어준 버선 도안 위에 자신만 의 타래버선을 구상하고 작업할 수 있도 록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순회 지도를 하며 자유로 운 분위기에 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다.
정리 및 마무리 (10분)	정리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차시 예고  ·주변 정리 및 인사	·실기재료와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3> 타래버선 - 종이 타래버선 만들기 작품평가

 <p>&lt;그림 24&gt;</p>	<p>한지를 바탕에 붙이고, 좋아하는 공룡을 선택하였는데 붉은 색종이를 붙여 마치 불을 내뿜는 듯 효과를 보였다. 반짝이를 붙여 화려하게 장식해 주고, 한지로 술을 만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표현을 하였다.</p>
 <p>&lt;그림 25&gt;</p>	<p>한지를 길게 감아 또아리를 틀 듯 둥글게 감으며 붙여 부조의 느낌을 보여주어 인상적이다. 공룡의 눈과 발톱에 반짝이를 붙여 매섭고 날카로운 효과를 주었다.</p>
 <p>&lt;그림 26&gt;</p>	<p>나누어 준 문양도안을 붙이거나, 그려 넣기도 하였다. 버선의 앞코와 뒷코에는 노란색 한지를 붙이고 완성하여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p>
 <p>&lt;그림 27&gt;</p>	<p>타래버선의 유례와 같이 장수와 염원을 담아 부직포를 이용해 실제 신을 수 있는 버선을 제작하였다.</p>
<p>본 제작 활동을 통해 타래버선의 유례를 알 수 있었으며, 그 의미를 담아 버선을 제작하였다. 각 아동들은 취향에 따라 화려하게 꾸미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동물을 그려 넣는 등 다양한 결과물을 볼 수 있었다.</p>	

5) 동자석 - 꿈을 담은 동자석 만들기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공통적인 통과의례로서, 죽음을 기리는 기념물은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제주도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석상인 동자석을 무덤 양측에 각각 세워두었다. 두 개의 마주보는 동자석은 무덤을 지키고, 망자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지닌다. 동자석의 모습은 주로 머리모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땡기머리, 민머리, 쪽진 땡기머리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동자석들은 또한 다양한 종류의 지물을 손에 들고 있으며, 각각의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 역시 다양하다.<sup>34)</sup>

이처럼 동자석은 주로 죽은 자의 무덤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학습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염원을 담는다는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각자 자신만의 꿈과 염원을 담은 동자석을 제작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학습 과정안을 <표 1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4> 5차시 학습 과정안

단원 및 차시	대단원	제주향토문화의 이해	차시	5/6(70분)
	소단원	동자석 만들기 - 꿈을 담은 동자석 만들기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통과례와 동자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찰흙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담은 동자석을 만들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PPT자료(제주도의 통과례와 동자석에 관한 자료), 찰흙, 판, 플라스틱 조각도, 칼라 클레이		
	학생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동기 유발	· 제주지역의 돌하르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 PPT 자료 (동자석에 관한 자료)




34)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민속사전」 제주특별자치도, p.90.



	학습 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목표</li> <li>1. 제주도의 통과의례와 동자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li> <li>2. 찰흙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담은 동석을 만들 수 있다.</li> </ul>	
전개 (50분)	동자석에 대해 알아 보기	·제주도의 통과의례와 동자석에 대해서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한다.	·찰흙, 판, 플라스틱 조각도, 클레이,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
	작품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꿈을 담은 동자석을 구상한다.</li> <li>·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순회 지도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및 마무리 (1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li> <li>·다음차시 예고</li> <li>·주변 정리 및 인사</li> </ul>	·실기도구와 주변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5> 동자석 - 꿈을 담은 동자석 만들기 작품평가

 <p data-bbox="619 589 738 618">&lt;그림 28&gt;</p>	<p data-bbox="767 365 1340 629">축구선수를 상징하는 공을 들고 있으며, 발에는 클레이를 사용하여 축구화를 표현하였다. 머리에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게 노란색 브릿지를 넣어 동자석을 자신과 동일시하였다.</p>
 <p data-bbox="619 920 738 949">&lt;그림 29&gt;</p>	<p data-bbox="767 752 1340 904">손에는 총을 들고, 머리에는 군모를 씌워 자신의 꿈인 '군인'을 표현하였다. 총의 세밀한 묘사가 인상적이다.</p>
 <p data-bbox="619 1256 738 1285">&lt;그림 30&gt;</p>	<p data-bbox="767 1059 1340 1267">장래희망이 건축가인 아동이다. 자신의 꿈을 나타내듯이 망치를 들고 있는 동자석을 만들었다. 제주도 현무암의 특징인 구멍을 표현한 점이 독특하다.</p>
 <p data-bbox="619 1570 738 1599">&lt;그림 31&gt;</p>	<p data-bbox="767 1379 1340 1592">요리사와 가수의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다. 요리모를 씌운 동자석과 마이크를 들고 노래 부르는 작은 동자석 두 개를 통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p>
<p data-bbox="284 1697 1340 1850">본 활동은 동자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표현활동에서 각자의 소망을 의미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동자석으로 표현하여 각기 다른 개성이 느껴졌다. 특히 입체 활동인 만큼 전체적인 구조와 균형을 고려하여 활동하였다.</p>	

6)설문대 할망 - 상상화 그리기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의 다양한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창조신으로, 손으로 제주도를 빚어 만들 정도로 크기가 컸다고 한다. 제주도 내에서도 독특한 지형이 있는 각 지역마다 신화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관련된 지명과 전설이 무수히 생겨났다.<sup>35)</sup>

문화적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설화는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내어 아동들도 쉽게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학습에서는 제주도 탄생 설화인 설문대 할망에 대해 살펴본 뒤 상상화 그리기 활동을 통해 제주도만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며, <표 16>과 같이 학습 과정안을 제시한다.

<표 16> 6차시 학습 과정안

단원 및 차시	대단원	제주향토문화의 이해	차시	6/6(70분)
	소단원	설문대 할망- 상상화 그리기	대상	초등학생 1~3학년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유래와 관련된 설문대 할망 설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설문대 할망 설화의 한 장면을 상상하여 그릴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PPT자료(설화에 대한 동영상, 그림 자료), 쉐트지, 색연필, 물감, 물통		
	학생	지우개, 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학습 단계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0분)	동기 유발	·제주지역 설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여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PPT 자료 (설문대 할망 설화자료, 그림 자료)
	학습 목표 확인	·학습 목표 1. 제주도의 유래와 관련된 설문대 할망 설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5)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민속사전」 제주도 특별자치도, p.191.

		2. 설문대 할망 설화의 한 장면을 상상하여 그릴 수 있다.	
전개 (50분)	'설문대 할망 설화'에 대해 알아보기	·제주도의 설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영상 통해 설문대 할망 설화를 들려준다.	·지우개 연필, 크레파스, 싸인 펜, 색연필, 물감, 물통, 캔트지
	작품 활동	·설문대 할망 설화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그릴 장면을 구상해 보도록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상상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순회 지도를 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및 마무리 (10분)	정리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차시 예고  ·주변 정리 및 인사	·실기도구와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7> 설문대 할망 - 상상화 그리기 작품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32&gt;</p>	<p>설문대 할망이 돌과 흙을 날라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아주는 장면을 표현한 작품으로 노란 하늘과 파란 바다, 빨간 해의 색채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그림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33&gt;</p>	<p>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을 표현한 작품으로 뒷 풍경으로 산과 폭포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34&gt;</p>	<p>설문대 할망이 백성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산위에는 음식을 던져주는 사람, 그 음식을 다 먹을까 봐 걱정하는 두 사람을 그려 넣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민 그림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그림 35&gt;</p>	<p>설문대 할망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화내용을 부각 시킨 그림이다. 하늘과 산을 다양한 색을 선택, 채색하여 설문대 할망의 등장배경의 신비로움을 표현하였다.</p>
<p>설문대 할망 설화를 듣는 내내 매우 흥미로워 하였고, 설화 중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였다. 설화라는 모티브를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재미있게 표현하며 그림을 완성하였다.</p>	

### 3. 결과 분석 및 기대효과

제주향토 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은 총 6차시로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차시별 수업과정과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 영등굿 - 배방선 만들기 수업은 입체표현 수업을 선택하였으며, 영등할망설화의 내용 중 영등할망이 타고 가는 배방선을 제작하였다. 배를 제작함에 있어 남자아동은 배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를 중요시 하였고, 여자아동은 돛의 모양, 색 등 장식의 표현에 집중하였다. 실제로 배가 물위에 뜨는지를 궁금해 한 남자아동을 위해 실험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재료와 제작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2차시 원담 수업은 그리기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바다와 가까이 접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친근한 주제였으며, 원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사진 자료와 이호 테우 해변축제를 소개하였다. 본 표현활동에서는 아동들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과 원담의 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시 도채비 방쉬수업은 허수아비 만들기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허수아비를 행운의 상징물로, 아동에게 있어 허수아비는 자신을 지켜주는 행운의 마스코트로 표현하였다. 남학생은 평소 동경하던 영웅의 강한 이미지를 허수아비에 부여하였으며, 여자아동들은 화려하게 꾸미는데 주력하여 제작하였다.

4차시 타래버선 만들기 수업은 아기들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의미를 지니는 제주의 전통문화로, 그 전통적인 의미를 담아 버선을 제작하였다. 재료의 선택에 있어 종이와 아닌 튼튼한 부직포를 선택한 아동도 있었으며, 버선의 장식을 위해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아동도 있었다.

5차시 동자석 만들기 수업을 위해 찰흙을 사용하였다. 동자석이 들고 있는 지물을 아동의 소망을 담은 것으로 대체하였고, 이 과정에서 축구공, 군인을 상징하는 기관총, 건축가를 의미하는 망치, 요리사와 가수를 나타내는 모자와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의 동자석 등이 완성되었다.

6차시 설문대 할망 그리기 수업은 설화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장면을 선택하도

록 하였다. 아동의 대부분은 할망의 신비스러운 능력과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색감의 화면구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제주 향토문화요소 중 민간신앙, 생산기술, 세시풍속, 의식주, 통과 의례, 설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의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은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주제로 제시함으로써 아동에게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이끌어 내어 활발한 미술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둘째, 제주 향토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하고 있지만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문화요소들을 미술수업에 적용하여 작품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제주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졌으며 제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셋째, 문화요소를 미술표현 활동을 통해 재현해 봄으로써 제주 향토문화를 아동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 향토문화 요소와 기능, 의미 등을 되새겨 보았다. 더불어 입체작품은 아동에게 균형감, 양감 등 공간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고, 평면작품의 경우 다양한 화면구성과 화려한 색채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작품 표현에 있어 주제와 화면구성, 재료, 색채의 선택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수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주 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은 제주인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서 아동들은 작품제작 과정에서 표현력과 사고력의 확장뿐 아니라,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제주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아동 센터의 수업은 교실을 떠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만약 현장학습이 가능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향토문화를 미술수업에 적용하여 학습 과정안을 구상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제주향토문화는 제주도의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제주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이는 민간신앙, 세시풍속, 생산기술, 의식주, 통과례, 설화의 문화요소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술수업은 아동들로 하여금 제주향토문화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은 총 6차시로 진행되었다.

1차시 민간신앙 영등굿 수업은 영등굿의 유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굿’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설화에 나타나는 영등할망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표현활동 과정에서는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표현적 성향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시 수업의 주제는 제주의 생산기술로, ‘원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담은 실제 바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비교적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주제였으며, 특히 주거 환경이 바다와 가까운 아동들은 타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또한 표현활동에서 화면구성의 다양한 시각과 화려한 색채감각을 통해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3차시는 제주의 세시풍속을 다루었다. 도채비 방쉬에 대한 수업을 통해 액막이의 기능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를 유도하였다. 본 수업에서는 1차적 기능인 액막이 대신 행운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재현하였다. 1차시 배방선 수업에 이어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뚜렷한 성향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수업으로, 남자아동은 허수아비에 영웅캐릭터의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반면, 여자아동은 화려한 외모치장에 주력하여 제작하였다. 완성된 허수아비는 아동들 자신에게 각각 의미 있는 공간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4차시 제주의 의문화 주제에서는 ‘타래버선’을 다루었다.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제주인의 정신이 깃든 의복을 통해 제주 특유의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타래버선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화려한 색상,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하였고, 신을 수 있는 버선을 제작하기 위해 튼튼한 부직포를 사용해 제작하여 완성된 버선을 신어보기도 하였다.

5차시 통과의례 수업은 찰흙을 사용해 ‘동자석’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보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동들은 동자석의 외관에 흥미와 호기심을 보였고, 장례 의식이라는 기존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동자석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표현하였다. 자신의 소망을 상징하는 물건을 만들어 동자석의 지물과 대체하였고, 동자석의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외형에 주력하여 제작하였다.

6차시 설화 수업은 제주도가 여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접하며 호기심과 흥미를 지닐 수 있었으며, 표현활동에서는 아동들의 다양한 상상력과 함께 화려한 색채감감, 화면 구성력이 더해져 ‘설문대 할망’의 신비스러운 능력과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킨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총 6차시에 걸쳐 시행된 수업은 접근하기 어려운 제주 향토문화를 주제로 하여, 문화요소들의 연관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로 하여금 미술표현 활동으로 문화요소를 재현하면서 그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며, 미술활동을 통한 표현력을 높일 수 있었다. 자신들의 꿈과 염원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문화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향토문화를 적용한 미술수업은 아동들에게 제주향토문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자긍심과 향토애를 느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업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제주지역에만 국한된 수업 방식이 아니며, 타 지역에서도 문화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식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강권용 외(2012), 「제주해녀 옷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고찬화(2004),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사회복지법인 흥애원.
- 김광수(2015), 「제주건축 역사」, 제주건축사 협회.
- 김지순(2001), 「제주도 음식문화」, 제주문화.
- 라영숙 외(2008),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각.
- 박영순(2007), 「즐거운 제주 : 숨어있는 제주의 설화, 전설을 따라」, 제주넷.
- 비교민속학회(2003), 「민속과 교육」, 민속원.
- 신상범(2014),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 유철인 외(2015), 「통사로 살피는 제주해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문화 유산보존 사업회.
- 이경엽(2003), 「지역민속의 세계」, 민속원.
- 이명준 외,(1996),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 교육청.
- 임재해(2004), 「민속 문화를 읽는 열쇠 말」, 민속원.
- 정상박 외(2010), 「민속학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민속원.
- 조성윤(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 제주도 건축사회(1992),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2집」, 濟州道建築士會.
- 제주대학교 박물관(2012), 「제주의 바다, 땅 그리고 사람」, 제주대학교.
-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민속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풍토와 무덤(2011), 「제주풍토와 무덤」, 오디오북.
- 진성기(2003),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민속 연구소.
- 진성기(2010), 「제주의 세시풍속」, 디딤돌.
- 진성기(1996), 「제주의 전설」, 백록.
- 현용준(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학 위 논 문>

김효정(2014),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미술수업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 GI협동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지혜(2012), “지역축제와 연계한 미술 교육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순옥(2008), “지역문화를 활용한 초등학교 미술지도 방안”,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숙경(2007),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정은 (2009), “경산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미술문화 감상지도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보환 (2004), “포항지역 문화를 활용한 표현활동 수업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고 사이트>

제주문화원, (<http://jejucc.kr/>)

<ABSTRACT>

An Art Class Teaching Method using Folk Culture of Jeju

-Focusing on the low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Reung-mi Yun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Kwack

The world culture that has underwent a sudden change after modern times is now greeting the era of postmodernism. Breaking from the attitude of previous modernism that aimed at objectivity, universality and absoluteness, postmodernism pursues individuality and diversity. In addition, as a perspective based on microdiscourse, not on metadiscourse comes to the fore in various fields, surrounding nations that have been isolated so far and individuality and diversity of non-mainstream cultures such as ethnic groups, local communities, groups belonging to the nations as well as mainstream cultures of powerful nations started to be respected at last. Thus, each nation is now realizing the importance of broadcasting and preserving one's own culture, and education of native culture and local culture is being emphasized as a main method to boost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main agent at this point in time.

Republic of Korea has also bee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f local community culture continuously through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troducing teaching methods connected to local communities.

Thus, this study suggested a learning plan by applying characteristic of Jeju culture to art class as effort to pass down Jeju region's own folk culture. Through the art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enable children to understand meaning and spirit contained in folk culture of Jeju effectively, and to establish one's identity and stir up self-esteem as a Jeju citizen. For the foregoing, this study proceeded with 6-term classes based on the subjects of folk beliefs, seasonal customs, manufacturing technology, food, clothing and shelter, rite of passage and folk tale, an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lk culture of Jeju region, it was able to draw understanding from children with ease by borrowing elements linked to real life of inhabitants, drawing friendliness toward unique cultural elements across the board of the life of Jeju people.

Second, this study prepared an opportunity to meditate meaning and spirit contained in details of culture by reenacting contents of culture obtained through the process directly as an activity of art expression. At the time of manufacturing activity, this study was able to proceed with class by inducing active attitude from children, maintaining their interest and attention.

Third, children's way of thinking was expanded as they applied reenacted work to their real life through expression activity, and this study was able to prepare an opportunity for children to stir up self-esteem as a Jeju citizen.

This way, this study was able to help children's effective understanding by applying folk culture class that lower graders are hard to access to art class. This study was also able to enable children to stir up one's identity as a Jeju citizen by having them understand and realize the value of folk culture of Jeju. Further, art class that applied local folk culture is of help to obtaining directing point of the present age that pursues individuality and diversity of culture, and has a significance as education for cultivation of talent commensurate with cultural diversity and globalizatio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6. 8